

“전사법 조례 제정하라”

직지사 본·말사 주지 70명 촉구 “절 주변 개발허용 조례 반대”도

사찰 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공포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자치단체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의 안(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 준농림지 개발허용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자 조계종 제8교구 사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8교구 본사인 직지사(주지 녹원)를 비롯한 본·말사 주지 70여명은 3일 김천 직지사에서 “전통사찰보존법 조례제정 촉구 및 난개발조장 조례제정 반대모임”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임에서 스님들은 “지난해 2월 전통사찰 및 문화재 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건축법 시행령 등이 폐지된 뒤 각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늦추고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불교계는 사찰주변 환경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찰주변 건축제한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월12일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공포하고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 4월15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나 경북 영주시, 경기도 성남시 등을 제외하고는 어느 곳도 아직까지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주시와 성남시가 지난 5·6월에 제정·공포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는 전통사찰이 위치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한 전통

사찰보호구역 주변지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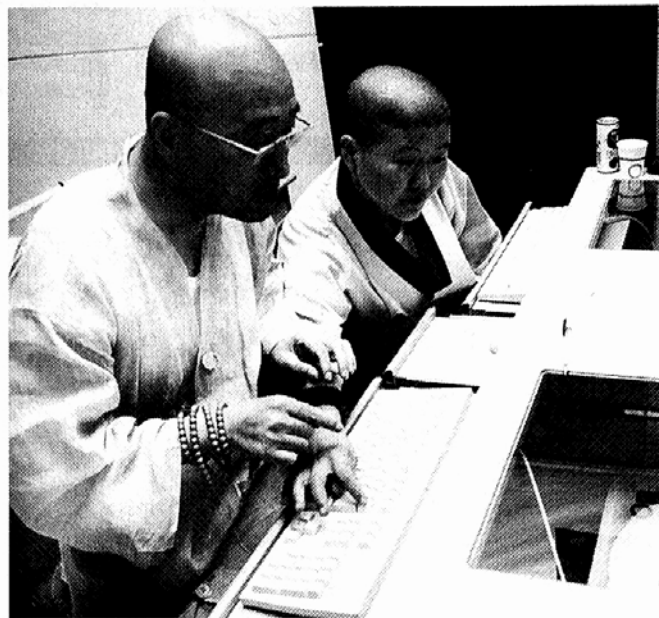
법일 직지사 연수원장은 “일부 기초의회에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직지사는 앞으로 환경보호단체 등 시민 운동단체와 연계, 이같은 자연환경 훼손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자치단체의 조

례 제정과 관련, 4일 발행한 정보통을 통해 해당 전통사찰에 대응지침을 시달렸다. 총무원은 지침을 통해 조례 제정의 사전 절차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과 지자체가 협의해 전통사찰보존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해당 사찰은 경내지 도면을 작성해 지자체와 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도록 했다.

한편 구미 경실련과 YMCA 등 7개 시민·환경단체와 불교계는 10일 성명서를 발표. 경북 구미시의 준농림지역 개발 조례 제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성운·김재경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교육원에서 주관한 승려전산교육에는 교육원장 일면스님(왼쪽),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등 교계의 지도자와 강원도의 학인들이 동참했다.

조계종 교육원 승려 전산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7~12일 6일간 동국대 전산원에서 승려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원장 일면스님이 직접 교육생으로 참가한 이번 전산교육에는 월정사 주지 현해 스님과 청암사 지형스님, 전곡강원의 학인 스님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은 컴퓨터를 다루는 법에서부터 워드프로세스, 인터넷 기초 등을 공부하는 초급반과 인터넷 활용방법을 심화하는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편 교육원은 이번 전산교육에 참가한 강원도 학인들에 대해 교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1면 '조계사 신협서 계속'

나 단체별로 재정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의지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자금줄을 뚫을 수 있는 상황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안건회계법인 주요식 사장은 내부통제시스템이 빈약한 종교단체에서 횡령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수익사업에 할 경우에는 철저히 사업차원에서 접근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사장은 "이제는 불교계도 일반 기업의 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출된 문제들은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길 것은 맡겨야 하고 내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가연대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조계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과 기관들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운영관리 개선조치를 취해 종단을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이대정스님=독립운동가

조계종 불학연 '일제고법 판결문' 발견

불교계 독립운동사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대정(강원도 월정사) 스님의 '고등법원 판결문'이 발견됐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는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에서 '1920년 월정사 승려 이대정의 경성복심법원 형사부 판결문 및 1921년 고등법원 형사부 판결문'을 찾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상해 임시정부의 '의원참모사'(지금의 의원비서)라는 직책의 이대정 스님은 1920년 4월 의친왕 이강(李綱)을 임시정부로 망명시키려고 함일독립운동의 구심체로 삼으려 했지만, 자금 부족

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해 8월 서울 영락정에서 체포돼 2년간의 옥고를 치렀다는 것이다.

이 판결문은 불학연구소 박희승 연구원이 1997년부터 독립운동가이자 조선불교조계종의 초대 총무원장인 이종욱(강원도 월정사) 스님에 대한 '친일 의혹'에 쫓겨가기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광식(근현대불교사 연구가·대학사상 수석연구원) 박사는 "이대정 스님의 판결문은 불교계 함일운동사에 새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며 "판결문을 토대로 스님의 함일부정의 여정을 되짚는 연구가 따른다면,

이종욱 스님의 '친일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정·이종욱 스님은 강원도 월정사 출신으로 1910년대~1920년대 사이에 '이강 망명'과 '대동단 활동' 등 동일한 함일운동을 전개한 만큼, 이대정 스님의 활동에 대해 역학 관계를 추적한다면 이종욱 스님의 '친일 의혹'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학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근현대 한국 불교사·조계종단사'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 자료 수집과 정밀 분석 과정을 거쳐, 이대정 스님과 이종욱 스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이대정 스님의 판결문은 불교계의 새로운 항일(抗日) 사료로, 이종욱 스님에 대한 '연구'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강원교과목 개선 필요”

종범스님 '전문수행 위주 편성' 주장

전통강원의 교과목이 전문 수행에 적합하도록 편성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사진)은 조계종 교육원이 발행한 <승가교과제3집 '승가의 기본교육과 교과과정'이라는 논단을 통해 주장했다.

종범스님은 사미과의 '조선승주'는 선수행 등이 포함돼 있으며, <초발심사경문>과 <치문>은 산중수행과 선수행을 강조한 선문의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또 사미과의 <도서>(필요)는 선교일치를 피력했고, <서장>(선요)은 강화선 수행을 역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과의 <능엄경>(가신론)(원각경)은 조사선지의 근원이 되는 여래장 청정심을 선설한 것이고, <금강경>은 오가해를 통해 별전선지로



이해해 왔으며 대교과 <화엄경>도 화엄의 교의와 사상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심의 근원을 밝히는 경전으로 강설됐다고 설명했다.

종범스님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교기본원리 학습과정 필요 △교단의 전통정신 체득과 계승 △교과목사 실행능력 수련 △교과단수호 및 관리능력을 길러주는 등의 교과목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opia.com)

‘오수처리지원단’ 설치 환경부, 4대 강에

지리산반 건설계획과 관련 수량 관리 정책보다는 종합적인 수질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4대강 유역의 수질 보전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4대강 유역 환경감시대 산하에 오수처리시설 기술지원단을 이달 중 별도로 설치, 시설점검과 함께 계도성 기술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환경부로부터 기술검증을 받은 우수 오수처리시설 제조업체의 기술인력과 환경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된다. 기술지원단에는 인건 대한산업(원), 광주 (원)장호울산 (원)비엔 등 총 25개 업체가 참여한다.

김재경 기자

지리산 공원구역 확대 썩개사지구등 포함

정부가 지리산 국립공원구역으로 경남과 전남·북 일원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공원구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6일 환경부의 '지리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울진말개 경남과 전남·북 일원의 9개 지구에 걸친 44,023km²의 면적이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경남의 경우, 산청군 삼장면 내원사 및 대원사지구 14,925km², 산청군 시천면 종산리지구 0,966km², 하동군 화개면 썩개사지구와 청암면 일원 14,068km²,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지구 10,054km²의 면적이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으로 새로 편입된다. 전남 구례군 천은사 및 화엄사, 연곡사 지구 3,016km²의 면적이 편입되고 전북 남원시 주천면 구룡폭포지구 1,343km²의 면적이 추가 편입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군중선발 기준 확대” 군승단, 조계종에 요구

군승단(단장 김말환)은 8일 호국원공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군중사관후보생 수급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교구본사 강원도에 재학생인 학인을 1년에 한두명 정도 군중요원으로 선발해 줄 것과 군법사를 희망하는 동국대·승가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특별관리를 해 줄 것을 조계종 포교원에 요구기로 했다.

김두식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남북선언 실천법회’ 24일 관문사서

종단협 이사회, 대각종 가입 승인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는 9일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남북공동선언 지지·실현을 위한 범불교도법회'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종교분과위원회(위원장 송석구 동국대총장)와 공동 주최해 24일 오전 11시 천태종 관문사에서 봉행하기로 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또 대각종(총무원장 만칭)의 종단협의회 가입을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불교법화종의 재가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각종이 가입함으로써 종단협의회 가입 종단은 27개로 늘어났다.

대각종은 96년 10월 1일 현재 총무원장인 만칭스님(사진)이 창종했으며, 고구려 순도 화상을 종조로, '식가세존의 자각, 대각, 각행, 교와 선을 봉제하신 순도화상의 대승종 선양'을 종지·종풍으로 삼고 있다. 소의경전은 금강경이다.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충남 등 5개 교구에 소속된 500여 사찰에서 90여명의 스님과 6만2천여명의 신도들이 수행과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총본산은 충북 부여의 미암사이며, 원로원과 중앙총회, 총무원, 사정원, 포교원, 교육원, 수선원, 문화원 등의 중앙기구를 두고 있다.

종단협의회에 새로 가입한 대각종 총무원장 만칭스님은 "여러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총본산이 부여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백제불교의 얼을 살리는 사업과 한·일 불교문화 교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원, 사정원, 포교원, 교육원, 수선원, 문화원 등의 중앙기구를 두고 있다. 종단협의회에 새로 가입한 대각종 총무원장 만칭스님은 "여러 종단의 총무원장 스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불교 발전에 기여하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총본산이 부여에 자리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백제불교의 얼을 살리는 사업과 한·일 불교문화 교류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화 고

大韓佛敎 曹溪宗 比丘 靈山堂 正眞 大和尚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4년 8월 1일(陰曆 7월 2일) 오전 11시 서울 상도동 普門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불기 2544년 8월 3일 (음력 7월 4일) 오전 8시 ◎永訣場所: 서울 동작구 상도동 보문사 ◎茶毘場: 전남 나주 경현동 多寶寺 茶毘場

- 증 명: 혜암, 서웅
- 고 문: 정대
- 장의위원장: 정련
- 장례위원: 혜창, 원공, 덕기, 원명, 기봉, 경남, 혜남, 도원, 정각
- 호 상: 기현
- 집행위원장: 성웅, 자용
- 집행부위원장: 송복
- 지도위원: 효경, 일연, 은월, 현성, 지암, 무염, 혜연, 범성, 오원, 동훈, 도안, 법해, 범일, 혜도, 혜자, 성관, 성오, 대련, 범경, 현철, 백운, 정수, 견진, 영운, 도성, 범진, 명운, 우정, 범승, 보현, 호명, 담교, 능화, 도암, 자음, 적운, 정해, 범성, 실산, 범운, 장직, 원타, 영진, 지근, 심우, 진성, 범우, 범승, 성후, 일수, 수진, 수안, 주오, 적목, 탄공, 지경, 동진, 진용, 진성, 범해, 지광, 연담, 귀영, 범능, 혜성, 동희, 혜인, 범안, 무구, 종률, 영진, 혜진, 상덕
- 보문 중앙 방생자비회 일동, 보문 용두 자비방생회 일동, 보문 마산 자비방생회 일동, 보문 거사회 일동, 보문 자비방생 합창단 일동, 국군 병계병원 자전사 일동, 국립 재활원 일동. (무순)

- 사 형 제: 적명, 종호, 일륜, 능인, 정담, 도업, 제철
- 문 도: 회정, 선타, 일지, 성일, 성수, 성오, 성관, 성달, 성각, 정암, 심적, 대안, 성우
- 상 좌: 지공, 지암, 지범, 지인, 선문, 지천, 지월
- 장의도감: 현범

人事 말씀

공사 多忙하심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永訣式에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뵈고 人事드립니다. 도리인줄 아오니 愧怍中 우선 지면으로 심심한 感謝의 인사를 올리오니 널리 惠諒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9齋를 상도동 보문사에서 奉行하오니 무루 參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대표: 지 암 합장

- ▶ 49재 일시: 불기 2544년 9월 18일(음력 8월 21일) 오전 10시
- ▶ 장 소: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79-390 보문사
- ▶ 문 의: 02)823-7443

靈山堂 正眞 大和尚 葬儀委員會